



중국의 한류바람, 출판으로 이어진다

아시아지역 최대규모 도서전시회의 하나인 북경 국제도서전시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Beijing Exhibition Center)에서 5일간 개최되었다. '출판과 교류(Publications and Exchange)'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북경국제도서전에는 중국 587개, 해외 352개 등 40개 국가에서 939개사가 참가하였다. 한국은 모두 38개사가 참가해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2002년보다 대폭 증가한 저작권 거래 상담 및 계약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인민일보(人民日報)는 9월 17일자 (www.people.com.cnGB/14738/14754/14765/2096085.html, www.people.com.cn/GB/14738/22115/29768/) "한국관은 '올해의 부스'로 주목 받을 만큼 그 규모나 외관, 전시내용에 있어서 다른 참가 국가를 압도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출판 콘텐츠의 선

진화가 저작권수출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전시회 개최식 전일인 9월 16일 저녁에는 중국출판공작자협회 관계자들과 출판문화협회 회장단과의 미팅이 있었다. 이 자리는 지난 8월 APPA(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총회에서 만났던 인사들이 다시 해후, 우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9월 17일, 개막식은 당초 전시장 광장에서 중앙출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된 단상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져 장소를 실내로 변경해야 했다. 주최측은 비로 인해 관람자와 내방객이 적을 것을 우려했지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부스 중에서도 한국관이 단연 관심의 대상이었다. 저녁에는 해외 참가사 환영리셉션이 천안문광장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출판과 교류(Publications and Exchange)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북경국제도서전에는 중국 587개, 해외 352개 등 40개 국가에서 939개사가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모두 38개사가 참가하여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2002년보다 대폭 증가한 저작권 거래 상담 및 계약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회 둘째 날에는, 중국 국무원 고위간부들이 전시장을 찾기로 해 보안과 경호상의 이유로 오후 4시에 참가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권위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다.

이번 도서전에 참여한 한국관 참가사들은 전체적으로 저작권 거래 700여 건 상담에 250여 건의 계약이 추진되어 150만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시회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수출건수 및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전 전체적으로는 각종 크고 작은 세미나 및 강연회가 40여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 중 특이할 만한 세미나는 중국대륙과 대만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동출판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세미나를 들 수 있다. 향후 서울도서전에서도 남북한간의 언어이질화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문화 및 출판 문화의 중국어권 독자층 개발, 저작권 수출의 활로 모색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꾸준한 시장조사, 출판현황, 서점정보 및 출판사정보의 획득 및 최신화가 요구되며, 최근 일고 있는 한류와 관련하여 참가사별로 특성화된 출판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출판시장에서도 점점 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필**

안준모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